

일부지역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조사

윤현서‡, 남유영, 유현아, 김혜진, 이민경, 이정화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A Surve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Hyun-Seo Yoon‡, You-Young Nam, Hyun-A Ryu, Hye-Jin Kim, Min-Kyung Lee,
Jung-Hwa Lee
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the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It divided it into by department for one month in March of 2013, surveyed totally 310 people, and then finally analyzed 302 peo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oral health care knowledge,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s saying of 'needing to receive regular check-up once per 6 months' was the highest with 97.7%.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s saying that 'food of containing lots of sugar is good for health of teeth' was the lowest with 10.9%. The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high in women($p=0.036$). The age was the highest in 21-22 years old and was the lowest in 25-27 years old($p=0.001$). In department, the health department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The natural-science department was indicated to be low, thereby having shown difference($p<0.001$). In academic year, sophomore was the highest. Senior was indicated to be the lowest($p=0.030$). A case of non-smoking was high in knowledge level($p=0.027$). A case of not having part-time job was indicated to be high in knowledge level($p=0.032$). A case of recognizing that the whole health status is very healthy was low in oral health perception level($p<0.001$). The more perception as saying that the oral health status is very healthy led to the lower even in the oral health perception level($p<0.001$).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develop a systematic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are needed for the distressed people.

Key words :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erception, Subjective or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yoonhs@deu.ac.kr)

I. 서론

오늘날 구강건강에 대한 개념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구강악안면 조직기관의 상태이며[1],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적절한 생리적 구강기능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2]. 오늘날 건강의 개념은 단순한 심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삶에 있어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그 중 하나인 구강건강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1].

전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구강병인 양대 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이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은 공중구강보건학과 예방치학의 분야에서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3,4]. 2012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치아의 기능을 잃게 되는 원인으로 치아우식증은 55.22%, 치주조직병은 9.25%로 나타났다[5].

또한 201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만성질환으로 치주질환이 3위, 치아우식증이 8위로 나타났으며[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자료에서도 성인의 경우 22.6%가 치아우식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 구강건강에 있어서 발생의 빈도가 높고 치아의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법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치과방문과, 올바른 칫솔질방법 및 보관법, 올바른 식습관 등과 같은 구강보건관련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거의 이루어 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학령기에 형성되지 못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식들은 대학생이 되었어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특히 대학생들은 성인이며 생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을 하기에 이 시기의 구강보건관련 지식은 관리행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개인의 평생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9]. 구강보건지식의 효율적인 전달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 안되는 부분이 개인의 인식 부분이다. 획일화된 구강보건교육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구강보건교육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10]의 연구결과에서 객관적인 임상검사결과 보다는 본인이 직접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구강건강증진에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관리법이 달라지고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산지역 일부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과계열, 의료보건계열과 학년별로 구분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0명을 조사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8명을 제외한 302명(97.4%)을 최종분석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 윤[11]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구강건강관리지식 20문항, 구강건강인식은 6문항, 자신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구강상태 각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혈액형, 학과계열, 학년, 월 총 소득, 총 가족 수 등을 포함한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관리지식, 구강건강인식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지식과 구강건강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302명 중 남자가 43.7%, 여자가 56.3%였고, 연령은 18-20세와 21-22세가 각각 31.8%, 23-24세 24.9%, 25-27세가 11.5% 순이었으며, 혈액형은 A형 31.1%, B형 29.1%, AB형 17.9%, O형 21.9%였다.

학과계열은 인문사회계열 22.2%, 자연과학계열 30.7%, 공과계열 24.5%, 의료보건계열 22.5%이었고, 학년은 1학년 32.1%, 2학년 23.5%, 3학년 26.2%, 4학년 18.2%였다.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원미만이 13.9%, 201~300만원미만이 14.9%, 301~400만원미만이 28.8%, 401~500만원미만이 21.9%, 501만원이상이 20.5%였

고, 가족수는 1-3명이 17.3%, 4명이 63.2%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19.5%였다.

흡연여부에서 '예'가 16.9%, 음주횟수는 '안 마신다'가 28.7%, '주 1-2회'가 41.7%, '주 3-4회'가 14.2%, '주 5-6회'가 4.0% '주 7회'가 1.3%였다.

아르바이트는 '예'가 28.5%, 이성친구는 '예'가 39.1%였다.

2. 구강건강관리지식 수준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지식 수준은 <Table 2>와 같다. 구강건강관리지식도 파악을 위한 설문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의 정답률이 97.7%로 가장 높았고, '치아는 음식을 씹고, 말하고, 입 모양 유지 기능이 있다'의 정답률이 97.4%, '잇 솔질을 할 때 피가 나면 치주질환이다'의 정답률이 9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치아 건강에 좋다'의 정답률은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잇 솔질을 세게 할수록 치아건강에 좋다'의 정답률이 13.6%, '치통이 있을 때 약만 먹어도 된다'의 정답률이 18.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3. 구강건강인식 응답률

구강건강 인식에 대한 응답률은 <Table 3>과 같다. '잇몸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03명(34.1%)로 가장 많았고, '나는 입 냄새가 난다고 생각 한다'에 128명(42.4%), '나는 치열상태가 나쁘다고 생각 한다'에 93명(30.8%), '나는 이가 누렇다고 생각 한다'에 122명(40.4%) 비율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 한다'에 '그렇지 않다'가 126명(4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2	43.7
	Female	170	56.3
Age	18-20	96	31.8
	21-22	96	31.8
	23-24	75	24.9
	25-27	35	11.5
Blood type	A	94	31.1
	B	88	29.1
	AB	54	17.9
	O	66	21.9
Department of Science	Humanities and Social	67	22.2
	Natural science	93	30.7
	Engineering	74	24.5
	Health care	68	22.5
Grade	1	97	32.1
	2	71	23.5
	3	79	26.2
	4	55	18.2
Mon household gross income	<200만원	42	13.9
	201~300	45	14.9
	301~400	87	28.8
	401~500	66	21.9
	501<	62	20.5
Family members	1-3	52	17.3
	4	191	63.2
	5<	59	19.5
Smoke	Yes	51	16.9
	No	251	82.8
drinking times	No	117	38.7
	1~2회	126	41.7
	3~4회	43	14.2
	5~6회	12	4.0
	7회	4	1.3
part-time job	Yes	86	28.5
	No	216	71.5
Girlfriend	Yes	118	39.1
	No	184	60.9
Total		302	100.0

<Table 2>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For oral health knowledge	Correct answers can(N)	Correct answers can(%)
Tooth have functions that chewing foods, speaking, maintaining shapes.	294	97.4
Kids have 18 baby teeth in total	181	59.9
Adults have 30 permanent teeth in total. (except wisdom tooth)	139	46.0
Sometimes can't feel the pain when tooth decays (decayed tooth),	256	84.8
Don't need get treatment at baby tooth.	62	20.5
Decayed tooth or periodontal disease will become worse if don't brush one's teeth.	297	92.4
It is periodontal disease if bleeding when brush one's teeth.	225	74.5
Periodontal disease makes tooth loose , and can't chew the food.	245	81.1
You should brush your tongue when you brush your teeth.	291	96.4
If baby teeth comes out early, around teeth slant.	208	68.9
When you have toothache, you can just take a medicine.	57	18.9
Food contained much sugar is good for tooth health.	33	10.9
It is desirable that picking one's teeth.	60	19.9
Hard tooth brush head can clean one's teeth more clean than soft one	62	20.5
Brushing your teeth hard is good for tooth health	41	13.6
The best time of brushing one's teeth is right after a meal.	174	57.6
You should have regular checkups at once every six months.	285	97.7
You should change your tooth brush at once every 3 months.	250	82.8
So for your upper teeth, you brush from top to bottom, and from bottom to top for your lower teeth	270	82.8
Oral health runs in family.	165	54.6

<Table 3> Response rate of oral health awareness

Characteristic	Very	Yes	So so	No	Never
I think smells	39(12.9)	98(32.5)	128(42.4)	31(10.3)	6(2.0)
I do not think that periodontal status	37(12.3)	103(34.1)	100(33.1)	57(18.9)	5(1.7)
I think bad dental condition	59(19.5)	77(25.5)	93(30.8)	54(17.9)	19(6.3)
Author thinks that nureotda	16(5.3)	57(18.9)	122(40.4)	96(31.8)	11(3.6)
I think that would be treated	22(7.3)	50(16.6)	74(24.5)	126(41.7)	30(9.9)
I think that a cavity	41(13.6)	63(20.9)	70(23.2)	105(34.8)	23(7.6)

N(%)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인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인식수준은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여성이 높았고(p=0.036), 연령에서는 21-22세가 가장 높았고, 25-27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계열에서는 보건계열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자연과학계열이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학년에서는 2학년이 가장 높았고 4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30).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지식수준이 높았고(p=0.027),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는 남자가 높았고, 18-20세가 높았으며,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4>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awarenes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Knowledge(20)	Oral Health Awareness(30)
Gender	Male	15.21±2.64	17.43±4.56
	Female	15.85±2.61	17.15±4.25
	p	0.036	0.585
Age	18-20	15.79±2.28b	17.59±4.35
	21-22	16.01±2.60b	16.89±4.06
	23-24	15.49±2.63b	17.36±4.14
	25-27	13.94±3.12a	17.28±5.77
	p	0.001	0.733
Blood type	A	15.65±2.36	16.80±4.35
	B	15.57±2.78	17.01±3.97
	AB	15.24±2.93	17.24±4.99
	O	15.74±2.60	18.33±4.36
	p	0.754	0.153
Department of Science	Humanities and Social	15.76±2.18bc	17.28±4.55
	Natural science	14.69±2.76a	17.12±4.66
	Engineering	15.62±2.52b	17.39±4.21
	Health care	16.54±2.67c	17.35±4.11
	p	p<0.001	0.979
Grade	1	15.76±2.30b	17.80±4.14
	2	16.10±2.32b	16.82±4.45
	3	15.44±2.64ab	16.95±3.92
	4	14.75±3.36a	17.40±5.28
	p	0.030	0.448
Mon household gross income	<200만원	15.45±2.50	16.90±4.41
	201~300	15.58±2.49	17.71±4.08
	301~400	15.72±2.47	17.71±4.54
	401~500	15.30±3.00	16.83±4.29
	501<	15.73±2.72	17.06±4.52
p	0.868	0.661	
Family members	1-3	14.98±2.73	16.81±5.26
	4	15.76±2.54	17.49±4.11
	5<	15.47±2.83	16.98±4.43
	p	0.157	0.519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ral Health Knowledge(20)	Oral Health Awareness(30)
Smoke	Yes	14.82±2.84	16.88±5.52
	No	15.70±2.58	17.34±4.13
	p	0.027	0.580
drinking times	No	15.44±2.67	17.35±4.83
	1~2회	15.48±2.76	17.38±4.03
	3~4회	16.28±1.86	16.65±4.17
	5~6회	15.75±3.05	17.50±4.74
	7회	14.00±1.78	17.75±4.19
	p	0.291	0.903
part-time job	Yes	15.06±2.87	17.71±4.38
	No	15.78±2.54	17.10±4.39
	p	0.032	0.278
Girlfriend	Yes	15.36±2.64	16.66±4.57
	No	15.71±2.64	17.67±4.23
	p	0.254	0.051

5.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 수준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은 <Table 5>와 같다. 건강신념 총점은 최저 6점~최고30점으로 낮을수록 구강건강 인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

건강인식 평균값이 낮아질수록 건강상태와 구강상태가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매우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건강신념은 13.96점, 구강상태가 '매우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건강신념은 11.26점으로 건강 및 구강상태가 양호한 응답자 일수록 건강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p=0.000).

<Table 5> Overall health status and oral status of oral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warenes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Health awareness		
		Mean±S.D	F	p
health status	Is not healthy at all	22.66±7.201	5.301	0.000***
	Is not healthy	18.30±4.552		
	Is usually	18.06±3.359		
	Healthy	16.68±4.225		
	It is very healthy	13.96±5.391		
oral status	Is not healthy at all	22.50±7.211	5.083	0.000***
	Is not healthy	19.63±3.749		
	Is usually	17.70±3.508		
	Healthy	15.21±3.206		
	It is very healthy	11.26±5.237		

IV. 고찰

과거 치료목적의 구강건강관리법에서 인식의 변화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12]. 이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겠다. 개인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관리 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인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10].

일반적인 특성에서 흡연과 음주 여부에서는 흡연을 하는 경우 16.9%로 나타나 박과 문[13]의 연구에서 23.7%보다 낮은 차이를 보였으며, 음주에서는 마시지 않는다가 28.7%로 나타나 박과 문[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관리 지식에서 치주 질환과 관련된 지식수준은 평균 82.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과 문[13]의 논문에서 치아우식증은 34.9%, 치주질환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는 대학생이 대상이 되고 박과 문[13]의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이 50%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여도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p=0.036), 이는 윤과 김[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Jassem Al-Ansari의 연구결과에서 10점 만점에 7.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5]. 학년에서는 2학년이 가장 높은 16.1점으로 나타났으나, 윤과 김[14]의 연구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가 보건계열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과계열에 따른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보건계열이 전반적인 구강보건지식수준이 16.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이 등[16]의 논문에서 보건계열학생들이 칫솔질과 불소, 구강질환의 유전 등과 같은 구

강보건지식이 보건계열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구강건강인식수준에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6.68점,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3.96점으로 낮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17]의 연구에서 전신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구강건강상태 인식도 역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물론 김 등[17]의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이 다소 편중되어 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인식수준을 파악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추가적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건강에 관심이 적은 시기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개발과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Dental health materials development committee: Public oral health. Seoul, Komunsa. pp.6, 2012.
2. Lim BC: Public oral health. Seoul, Chung Ku Publisher, pp.13, 1999.
3. Kang SY, Kim JB: A Study on the Casuses and Needs for Extraction of Teeth in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7(1):7-20, 1983.
4. Dental Prevention Study Group: Preventive dentistry. Seoul, Kunsa, pp.113, 2010.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Oral

- Health Survey.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p.1-178, 2012.
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ne quarter of primary health care statistics.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
 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ress screening for caries determined,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1.
 8. Jung YH, Sin HM: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Activities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171-191, 2009.
 9. Kim YH: Comparative Study of the Student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s With or Without Dental Clinic.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361-368, 2012.
 10. Lee EJ: A study on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oral health behavior recogni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of adul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4):595-602, 2010.
 11. Yoon HS: A Study on Knowledge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among Adul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September 9(3):339-344, 2009.
 12. Choi HS, Hawng SH: Impa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1(1):7-15, 2010.
 13. Park HR, Moon SJ: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300-310, 2013.
 14. Yoon HS, Kim YS: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 in college students. J Kor Soc. Hygienic Science 12(2):69-77, 2006.
 15. Jassem Al-Ansari, Eino Honkala, Sisko Honkala: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male health sciences college students in kuwait. BMC Oral Health 3(2), 2003.
 16. Lee JD, Shin DM, Park JT: Oral Hygiene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for the students in the public health and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Journal of Korean Acedemy of Dental Technology 34(4):447-455, 2012.
 17. Kim NH, Kim HD, Han DH, Jin BH, Paik DI: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al symptoms and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mong the elderly in welfare institutions in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0(2):141-150, 2006.

접수일자 2013년 9월 23일
 심사일자 2013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0월 8일